

월/요/광/장

안진



아프간의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된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이 2일 귀국함으로써 아프간 인질사태가 45일만에 막을 내렸다. 피랍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필자가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복합적이다.

사태를 보는 관점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시선, 남성의 시선, 특정 종교인 기독교도의 시선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피랍사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만들어 낸 이미지 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이슬람의 율법은 여성을 해치지 않는다 혹은 여성을 존중한다는 관념이다. 실제로 과거 이슬람교도들이 탈레반 무장세력은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목사를 포함한 남성 인질 2명을 살해 하면서도 건강문제가 심각한 여성 인질 2명을 먼저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해 비록 무장단체이지만 '여성을 존중하는 신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에는 아직까지 문화적인 전통으로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된 채 음해절개의 관습이 존재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국민 혹은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

아프간 인질사태와 여성인권

한 성, 제2의 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이 소유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는 이슬람 영화, 세디그 바르막 감독의 '오사마'에는 탈레반 집권시절 이슬람 사회의 여성의 삶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12살짜리 아프간 소녀가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고통을 잘 보여준다.

병원에서 일하던 주인공의 어머니는 일 자리를 잃고 굶주리게 되자 자신의 딸인 마리아에게 남장을 시켜주고 오사마라는

남자 이름을 붙여준다. 남장을 한 마리아(오사마)는 구걸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지만 남장을 한 탓으로 군사훈련에 징집되기에 이른다.

마리아는 군대 교관에게 여자라는 사실이 탄로돼 결국 감방에 수감된다. 이 영화는 감옥에 갇힌 채 창살 너머 또 다른 거대한 감옥인 아프간과 이슬람 사회를 바라보는 여성의 지위가 잘 나타나 있다.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탈레반 시절 아프간에서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문학을 공부하거나 남장을 하는 것은 사

이 때문에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서 가장 고통받는 민간인 집단이 여성과 아동이었음을 지켜보면서도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묵인하고 이론적으로 옹인하는 공모자가 되고 말았다.

페미니스트의 상당수는 이슬람 전통과 탈레반정권 시절보다 지금의 아프간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몇몇의 1세계의 보수적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미국의 아프간 침략을 해방군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프간의 새 헌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의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아프간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을 소유하고 보호할 권리, 필요할 경우 아내를 소유하고 때릴 권리를 누리고 있다. 지금의 아프간 현실은 진정한 평등이나 평화가 외세를 등에 업고서는 제대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레반의 여성존중도 열등한 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교묘히 은폐하려는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광산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주택대출 금리 가파른 상승 방관만 할 건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발 이자폭탄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74%로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두 달새 0.5%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집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간 이자로 5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금리 급등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저축(CD) 금리 상승 때문이다. 통화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잡았다며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에 이어 콜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해 시중금리를 올려 놓았다. 여기에다 은행들이 당국의 돈을 풀기 정책과 증권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단기 조달 수단인 CD 발행을 늘리며 금리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은행과 통화당국

이라는 거대 고래 사이에서 서민들만 등이 터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으로 직결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4%는 변동금리 대출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전국 주택 가격의 평균 6% 하락,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5% 이상 수준에 진입하면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황도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고공행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금리 흐름을 바로 잡고 서민들의 불합리한 이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단기시장 금리에 좌지우지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회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약속 지켜라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 개막된다. 정치권은 하나같이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선의 해마다 반복됐던 '부실국회'의 고질병이 도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행 조짐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각 정당이 가까스로 개원 일정만 잡았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안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잡기 경쟁에 따라 개정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인 국감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신당은 이번 국감 등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검증무대로 치르겠다고 버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청서 사건 등 참여정부 일기 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맞팔'을 놓을 방침이다. 의제는 산적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각종 정치관계법 등 급작급작한 현안이 많아 뜨거운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각 정당이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쟁점 현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은 약속대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과 등유·프로판가스 관련법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법안이 쌓여 있다. 서남해안 특별법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도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치 일정상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지만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어서는 안 된다. 대선 때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뒷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 정당은 정기국회 문을 연 이상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 일정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지불한 인물은 단연 잉카제국의 아타왈파 황제다.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531년 11월 아타왈파 황제를 사로잡았다. 황제는 피사로에게 몸값으로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5m 되는 방울 황금으로 채워주고 그 2배 분량의 은을 모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황제는 두달동안 전국에서 금은보화를 끌어 모

아니려다가 8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산업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납치산업의 규모는 수십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11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서의 납치사건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실 납치산업의 원조는 중남미다. 전 세계 납치사건의 70%가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일어난다.

몸값



납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노력과 리스크에 비해 과실은 엄청나게 크다. 몸값도 헐리고 정치적인 선전 효과도 거둔다며 금전적합하다.

아프간 한국인 인질 몸값 여부를 놓고는 정이 한창이다. 정부(원원)라는 거액을 몸값으로 내놓았다. 현재 최고의 몸값을 지불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납치범들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도 몸값을 지불한 선례는 많다. 생명을 놓고 싸이는 인질 협상인 만큼 명분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가 몸값을 지불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납치범들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도 몸값을 지불한 선례는 많다. 생명을 놓고 싸이는 인질 협상인 만큼 명분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지후



최근 여대의 채무를 지고 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신청자에게 고금 원통에 살면서 외채자를 몰고 다녔다는 뉴스가 화제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개인파산·회생신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한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의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보여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기간(통상 5년)의 가용소득(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채권자들에게 분할

참작한다. 특히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신고한 금액을 증빙서류, 채무자 면담결과, 채권자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신고 금액에 의심이 가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여러 차례의 보정을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불실하고 부도덕한 채무자들이 늘어남수록 법원의 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 기준 또한 엄격해져 결국 대부분의 신청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개인회생 사건을 살펴하다 보면 채무자의 가치관과 양심까지 엿볼 수 있다.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자신

기고

나석주



광주지하철은 지금 축제준비가 한창이다.

개통 이래 해마다 가을이면 '메트로 축제'라는 전국 지하철 최초의 시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우러져 지하철 예술무대와 문화센터, 메트로갤러리, 테마열차 등 광주 지하철의 문화사업을 총괄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벌이는 것이다. 올해는 9월14~15일 본 행사를 포함해 장장 26일에 걸쳐 시민들과의 문화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의 길을 달리는 대중교통'이라는 주제로, 크게 경연대회, 공연마당, 체험마당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특이점은 모든 행사들

생활속에서 문화를 접한 시민들은 더욱더 문화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가치를 문화로 즐기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생산하고자하는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문화체육터인 '메트로 문화센터'를 개관, 시민들의 문화의 객체로서 직접 배우고 생산하는 문화 주체가 이끌어내는 블루오션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센터는 우리춤, 주부팝스, 풍선아트, 도예체험, 종이접기, 시화아트, 비즈공예 등 40여 강좌를 마련하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광주지하철이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광주지하철, 문화가 있어 즐겁다

이 친환경, 에너지절약,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일관된 부제를 달고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춤과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 반 공연과 전시 중심으로 시작된 초기 발견기 위주의 메트로 축제는 이제 공익적인 문제까지 다룸으로써 광주라는 아시아문화수도라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축제의 근간에는 개통이후 4년째 요일에 따라 색다른 공연을 펼치는 '지하철 예술무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까지 1천여회가 넘는 공연·전시와 광주비엔날레열차, 5·18열차 등 광주의 특성을 살리는 테마열차 운행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열차내 공연은 삶의 작은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지하철 문화로 인해 광주지하철은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서게 되었고, 시민들도 이를 통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적 향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문화'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겠다는 아름다운 좌표가 한결을 한결을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향 광주의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주지하철만의 독특한 문화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아 지하철이 명실 공히 광주의 문화 인프라로서 '사람' 뿐만이 아닌 '문화'를 실어 나르는 열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 지하철과는 다른, '문화지하철'이라는 독특한 색깔을 선명하게 내비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출퇴근길에, 시장을 가는 길에, 학교를 오가는 길에 지하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더 이상 '문화'를 낯설어하지 않으며 배우고 참여하는 문화의 생산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지하에서 율동 문화의 새싹은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새로운 희망의 열매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략기획실장>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면

해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잔존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청산절차를 밟아 일부 변제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여부를 심사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일정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계획인가를 하고 위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되었을 때 면책을 허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실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개인파산·회생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

개인회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성격(주채무인지 연대보증채무인지 여부·교육비·병원비 등 생계비 채무인지·도박·술 등 유흥관련 채무인지), 채무자의 현재 재산의 가치(이른바 청산가치로 채무자의 총변제액수의 현재가치가 이보다 높아야 한다), 가용소득 등을

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으며 농사를 지어 조금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겠다는 일념이 넘은 채무자가 있는 반면, 부인 명의의 고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전 문직업에도 동종 직종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게 소득을 신고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도 있다.

필자는 개인회생을 담당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5년간 꾸준한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 채무자의 선량한 양심과 의지, 개인회생 제도가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는 채권자의 이해와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하더라도 개인회생에 앞서 자신의 빚에 대한 책임의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광주지법에서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모든 채무자들이 5년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모두 밝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지법 판사>

'토종 종자' 파는 '종자은행' 지방에도 설립을

토종작물은 미래농업에 중요한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을 제외하면 토종작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 토종 종자가 멸종되거나 다국적 종자회사로 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농촌진흥청의 '종자은행'이 양적으로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질적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재배 중인 작물의 종자는 종묘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한국에서 재종된 것이 아니라 칠레 등의 외국에서 생산된 종자가 대부분이다.

농민들이 토종 종자를 쉽게 구입하고 재배할 수 있는 종자은행을 시·도마다 설립 운영하고, 연구기관들은 토종작물의 특성을 새롭게 연구하고 생육조건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청소년에 술 판매' 업무만 죄 묻기엔..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이 지난달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있는 탓에 또 경찰서를 갔다 왔다는 말을 들으니 격정도 되고 속도 상했다.

부모님이 무작정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던 것은 아니다.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 돌려보내지만 동네에서 자주 보는데다 자신이 이번엔 대화생이 되었다고 평소와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술을 팔았다가

이번에 또 적발된 것이다.

물론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판 어른들에게만 죄를 묻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심하다. 어느 누가 벌금 100만 원이 넘게 나올 줄 알면서 1천원짜리 술을 팔겠는가. 아이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 어렵다면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부모에게 벌금이 라고 받아 또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인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F A X 227-0118)	광 동 부 222-8005	(F A X 222-0195)
경 처 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6	광 서 부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제 부 2200-617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77)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